

추신수 18호 홈런 폭발



‘추추 트레인’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즌 18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0-0으로 맞선 4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선제 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25일 디트로이트와 경기 이후 이틀 만에 짜릿한 손맛을 본 추신수는 남은 8경기에서 홈런 2개만 보태면 호타존 쪽의 상징인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다. 추신수는 이날까지 도루 20개를 기록 중이다. 1회 2루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볼카운트 1-1에서 볼티모어 오른손 선발 투수 제이슨 버크의 슬라이더가 들어오자 그대로 퍼올려 우측 펜스를 넘겼다. 5회 2루수 뜯공에 그친 추신수는 6-6

동점이 된 7회말 또 한 번 매섭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무사 2루에서 추신수는 2루수쪽으로 날카롭게 뻗어가는 내야 안타를 터뜨려 1,3루 기회를 만들었다. 클리블랜드는 이 기회에서 자니 페달타의 2루타와 앤디 마르테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달아나 8-6으로 승리를 앞섰으나 마무리 케리 우드가 난조를 보여 9회초 8-8 동점을 허용하면서 추신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왔다. 추신수는 9회말 무사 1루에서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지만 1루 주자를 2루에 안전하게 보내 후속 페달타의 끝내기 안타로 팀이 9-8로 이기는 데 집값다리를 놓았다. 5타수 2안타를 때려 타율을 0.304로 약간 올린 추신수는 시즌 149경기에 출전해 35%인 52경기에서 안타 2개 이상을 때려내며 몰운은 타격감을 뽐냈다. /연합뉴스

KIA 대약진... 명가부활 이뤘다



정규리그 막내린 2009프로야구

삼성 예상밖 PS 탈락... 팀워크 무너진 LG 추락

지난 4월4일 시작된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26일 SK-두산(문학), LG-히어로즈(잠실)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시즌보다 팀당 7경기 늘어난 133경기씩 총 532경기를 175일에 걸쳐 소화했다.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하며 28년 프로야구사에 뚜렷이 기억될 한 해를 보냈다. ◇ KIA 대반란과 SK 두산의 저력 = KIA는 기존 멤버가 아니라 ‘외부 수혈’을 통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아킬리노 로페즈(14승)와 릭 구토스(13승)는 ‘효자 용병’ 정도로 불려서는 턱없이 부족할 만큼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 둘이 27승을 합작한 덕에 윤석민, 양현종도 살아났고 유동훈, 손영민 등 볼펜까지 철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LG에서 건너온 김상현을 빼놓고는 KIA의 약진을 얘기할 수 없다. 2003년 이승엽 이후 최다 홈런(36)과 타점(127)을 기록한 김상현의 방망이에서 호랑이 군단의 믿을 수 없는 대반란이 시작됐다. KIA는 9월초 5연패를 당해 한때 위기가 있었지만 8월2일부터 54일간 졸군 선두를 지킨 끝에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SK는 ‘차.포’ 김광현, 박경완이 전열에서 이탈하고도 막판 17연승으로 최다 연승 신기록을 작성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두산은 맷 랜들 방출부터 시작된 선발진 붕괴라는 악재를 안고도 ‘이천발 화수분 야구’로 3위를 지켜냈다. 홍상삼, 고창성 등이 구멍을 막았다.

◇ 삼성 탈락은 의외...롯데는 벼랑끝 생존 = 작년까지 12년 연속 가을잔치에 나갔던 삼성의 포스트시즌 진출 좌절은 의외였다. 뚜렷한 전력 상승 요인은 없었지만 선동열 감독의 지키는 야구와 타선의 효과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윤성환 외에 슬만한 토종 선발이 없었다는 치명적 약점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 2년째를 맞이한 롯데는 4월 한 달 악몽의 세월을 보내며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롯데는 6.7월 반전에 성공했고 4위 싸움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지난 12.13일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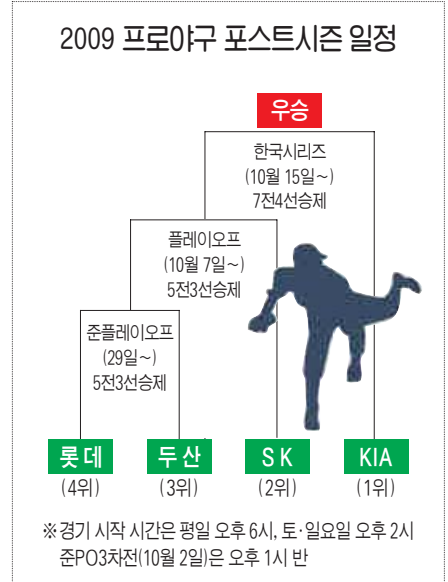
성과 2연전에서 연승, 2년 연속 준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 한화·LG ‘쓰러린 추락’ = LG는 1990년대 신바람 야구를 재현하겠다고 공언했고 초반에는 2위까지 올라서며 실제로 신바람을 냈다. 김재박 감독이 원했던대로 FA 최대어인 이진영, 정성훈을 데려오고 로베르토 페타지니도 붙잡았기에 타선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마운드에서 터졌다. 어렵게 꾸려가던 선발 로테이션이 무너지면서 하향곡선을 그렸다. 박명환의 재기와 대체용병 카드도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중 배터리의 마운드 언쟁과 구타 기합 사건이 터져 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한화는 올 시즌 그라운드를 휩쓴 ‘부상 쓰나미’의 최대 피해자였다. 김태균에 이어 이범호까지 부상으로 전열을 들라달라했다. 에이스 류현진 만이 외롭게 마운드를 지켰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연합뉴스

SK 19연승 아시아 新

내년 첫 경기서 20연승 도전

SK 와이번스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19연승을 질주했다. SK는 26일 문학구장에서 계속된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두산과 홈 경기에서 선발 게리 클로버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대포 3방을 앞세워 6-2로 낙승했다. 8월25일부터 열아홉번 연달아 이긴 SK는 1986년 삼성의 16연승을 넘어 국내 최다연승 신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일본프로야구 연승 기록도 깨트리며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일본에서는 1954년 소프트뱅크 전신 난카이 호크스와 1960년 지바롯데 전신 다이마이 오리온스가 각각 18연승을 달린 적이 있다. 메이저리그 최다연승 기록은 1916년 뉴욕 자이언츠의 26연승이다.

80승47패6무(승률 0.602)가 된 SK는 12년 만에 한국시리즈로 직행한 1위 KIA에 한 경기 뒤진 2위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2년 연속 80승 고지를 밟았고 3년 연속 6할 이상 승률을 기록했다. 열세였던 두산과 상대전적도 최근 6연승으로 9승9패1무로 균형을 맞췄다. 정규시즌 1위를 놓쳤지만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SK는 최다연승 기록을 ‘진행형’으로 만들어놓고 페넌트레이스를 마쳤다. 내년 시즌 연승 행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전날 출전하지 않아 ‘타격왕 만들기 추태’라는 비난을 샀던 LG 박용택은 이날 톱타자로 3차례 타석에 들어서 최다안타 경쟁을 벌였지만 무안타에 그쳤다. 타율이 0.374에서 0.372로 떨어지자 더 나오지 않은 박용택은 결국 1리 차이로 홍성흔(롯데, 0.371)을 제치고 타격 1위를 차지했다.



박종훈 두산2군 감독 LG 새 사령탑에 선임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3년 계약이 만료된 김재박 감독을 대신할 새 사령탑에 박종훈(50) 두산 2군 감독을 임명했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LG는 박 선임 감독과 계약기간 5년간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 등 총 12억원에 계약했다. 지난 2000년말 삼성 지휘봉을 잡은 김응용 감독(현 삼성 사장)이 처음으로 계약기간 5년 시대를 연 이후 ‘국보급 투수’ 선동열 감독(2005~2009년)에 이어 박 감독이 역대 세 번째로 장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연합뉴스

희 전남·광주 悲



전남, 성남 2대0 꺾어 광주, 대구에 0대1 패

6강 기로에 선 광주와 전남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 상무는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2009 K-리그 25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골을 허용하면서 0-1로 패했다. 26일 성남 일화홀딩스를 홈으로 불러들였던 전남 드래곤즈는 2-0으로 이기며 4경기 만에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수중전이 벌어진 광주경기는 마지막 뒷심이 아쉬웠다. 굵은 가을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양팀은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며 90분 내내 골 침묵을 지켰다. 대구의 공격에 맞선 광주의

수비는 90분 동안 골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수비벽이 무너졌다. 후반 46분 이슬기가 페널티 박스 정면으로 보내준 공을 받은 레오가 왼발 슈트를 터트리면서 길었던 침묵을 깼다. 경기 종료 직전 허를 찔린 상무는 그대로 반격 한 번 해보지 못하고 0-1로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다. 갈 길 바뀐 상무는 3연승 행진으로 ‘골짜기의 반란’의 주인공이 된 최하위 대구에 발목이 잡히면서 9승3무11패로(승점 30점)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은 26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와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두 골을 터트린 슈바의 활약에 힘입어 2-0의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청용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새내기 이청용(21·볼턴 원더러스)이 마침내 첫 골을 터트렸다. 이청용은 26일 밤(한국시간)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버밍엄과 2009-2010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9분 이반 클라니치와 교체돼 그라운드 투입된 뒤 1-1로 맞선 후반 41분 팀의 두 번째 골을 뽑아냈다. 볼턴이 2-1로 승리해 이청용의 득점은 결승골이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카메룬에 0대2패

‘멕시코 4강 신화’ 재현에 나선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200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차전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카메룬에 패하면서 힘겨운 첫 결승을 내디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7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집트 수에즈 무바라크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카메룬과 U-20 월드컵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반 19분 안드레 아코노 에파와 후반 20분 게르마인 티코에게 연속골을 허용해 0-2로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공연기 하는 강유리

27일 오전 충북 제천시 대원대학 민속체육관에서 열린 제34회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에서 강유리(인천체고)가 공 연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